

삼성전자, 「16화음 멜로디폰」

삼성전자는 최신 음악, 자연의 소리 등 50가지 이상을 기본옵션으로, 최신 가요 등을 다운받아 노래방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16화음 멜로디폰(모델명 : SCH-X130/SCH-X350)의 개발을 완료, 다음 주부터 본격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멜로디폰은 기존 제품의 단순한 기계음 벨소리를 16단계 화음의 부드러운 자연음 벨소리를 구현한 제품으로, 다양하고 화려한 음향효과를 구현할 수 있다.

삼성전자 애니콜 멜로디폰은 '내 손의 노래방' 기능 채용으로 배경 애니메이션과 함께 원음에 가까운 멜로디를 들을 수 있고, 샘플링 벨소리 채용으로 전화 수신시 휴대폰에서 친근한 여자 목소리나 꼬마 목소리로 휴대폰의 수신상태를 알려준다.

또한, 최대 전송속도 144kbps로 고속 무선데이터 통신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게임을 생생한 사운드로 즐길 수 있고, 대형 4라인 외부 LCD 창을 통해 단문 메시지(SMS), 휴대폰 상태, 발신자 번호/아이콘 등이 확인되며, 최대 2400개의 대용량 전화번호부 저장으로 강력한 개인정보관리가 가능하다.

특히, SCH-X350은 부가기능으로 세계 최초로 자바(JAVA)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채용하여 휴대폰의 확장성을 획기적으로 늘린 제품으로, 게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언제 어디서나 휴대폰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올 하반기 국내 휴대폰 시장에서 cdma2000 1x 제품이 전체 시장의 80%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제품군의 다양화와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멜로디폰의 출시로 개성을 강조하는 젊은 층에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6화음 멜로디가 구현되는 삼성전자 휴대폰은 PH-X2500, SCH-X130, SCH-X350 3개 모델이며, 가격은 50만원대이다.



삼성전자, 최소 LDI 패키지기술 개발

삼성전자가 업계 처음으로 휴대용 디스플레이에 필수적인 제품인 LDI(LCD 구동칩)의 크기를 초소형화 할 수 있는 패키지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개발에 성공한 기술은 컬러 휴대폰 및 액정 모니터의 IC 제조에 적용 가능한 신기술로 LDI의 각 채널 간 간격(Pitch)을 기존 제품 대비 약 12% 축소한 $40\mu\text{m}$ ($1\mu\text{m}$:1백만분의 1)으로 패키지할 수 있는 기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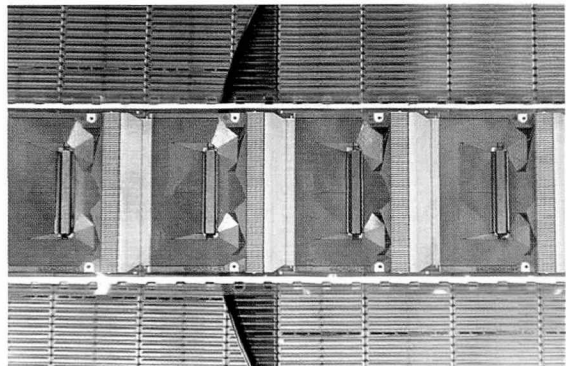
특히, 이번 기술은 현재 500개 채널 구조의 제품에서 향후 700개 이상 다채널 구조의 제품까지 적용 가능하며 디스플레이 제품에 탑재되는 구동용 칩의 수를 줄일 수 있어 소형화 추세의 휴대용 제품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패키지기술로 부상할 전망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패키지(TCP:Tape Carrier Package) 조립기술과 함께 칩 사이즈 축소에 따른 적합한 회로도 동시에 개발해 차세대 휴대용 디스플레이 제품의 소형화를 지원하는 기반 기술을 모두 확보하게 됐다.

삼성전자는 이번 기술이 추가 설비 투자 없이 기존 설비를 이용해 개발됨으로써 제품의 원가경쟁력을 크게 향상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전자는 칩 크기의 축소도 가능함에 따라 기존의 패키지기술 적용 제품 대비 약 15%의 고부가 제품 양산도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번 초소형 패키지기술을 적용한 LDI제품을 2002년 상반기부터 본격 양산할 예정이다.



LG전자, 비동기 IMT-2000 상용모뎀 AS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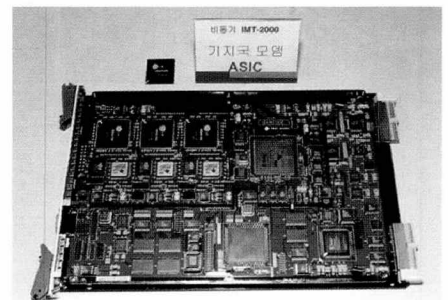
LG전자는 비동기 IMT-2000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핵심부품인 기지국 상용 모뎀 ASIC(모델명 : BS04100) 개발을 완료하고 이 칩을 적용, 국내 업체로는 처음으로 음성 및 패킷호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LG전자의 비동기 기지국 상용 모뎀 ASIC 개발은 그 동안 비동기 IMT-2000 시스템 개발의 핵심이었던 상용 모뎀 부분의 개발 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비동기 시스템 개발 분야의 국내 기술력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주요 부품 및 시스템의 국산화를 이뤄냄으로써 비동기 상용서비스가 국산 장비가 아닌 외산 장비로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킴으로써 2002년으로 예정돼 있는 비동기 IMT-2000 상용서비스 실시도 정상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LG전자가 이번에 개발한 기지국 상용 모뎀 ASIC은 비동기 국제 규격인 3GPP W-CDMA 최신 규격을 지원하며, 하향 48채널, 상향 4채널을 지원하고 384Kbps의 전송 속도와 2개의 다이버시티(Diversity) 및 6섹터를 지원하며 칩의 집적도는 약 450만 게이트(Gate)에 이르고 있다.

LG전자는 상용 모뎀 ASIC이 적용된 기지국을 확보함은 물론, 음성 및 영상통화 그리고 인터넷 연동 서비스를 위한 모든 망 장치들의 기본 기능 개발을 이미 완료한 상태이며, 현재 사업자의 상용시험에 대비 추가 기능 시험 및 안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LG전자, 게임강화 초소형 GVM휴대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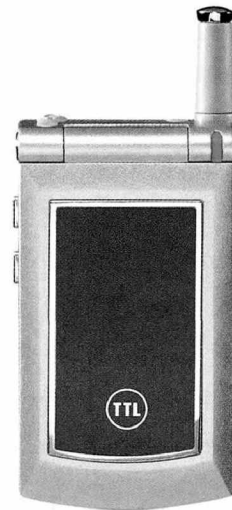
LG전자는 최근 60g대의 콤팩트형 디자인의 8라인 초대형 LCD창을 갖춘 폴더형 셀룰러 휴대폰 '싸이언 싸이버-5000' 시리즈 2개 모델(모델명: Cyber-5000/Power-5000) 개발을 완료하고 본격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싸이언 싸이버-5000' 시리즈는 모바일 인터넷의 핵심 콘텐츠인 게임기능을 강화한 GVM(Game Virtual Machine) 플랫폼을 내장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게임을 다운로드 받아 손쉽게 즐길 수 있으며 초소형 폴더이면서도 넓은 LCD창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등 무선 인터넷 사용에 적합한 최적의 기능을 갖춘 첨단 CDMA 휴대폰이다.

특히 기존의 휴대폰이 인터넷 접속을 통해서만 게임을 즐길 수 있었던 반면, GVM 플랫폼 내장 휴대폰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종류의 게임을 다운로드 받아 휴대폰에 저장한 후 On-Line 또는 Off-Line으로 언제든지 즐길 수 있다.

또한 이번 제품은 휴대폰 전면부를 세련된 싸이버 디자인으로 처리해 싸이버 세상을 열어가는 신세대 이미지를 강조했으며 삼페인골드, 화이트펄, 실버 등 다양한 색상으로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히는 한편 무선데이터통신 및 윈터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최적의 모바일 인터넷 환경을 갖췄다.

이와 함께 LG전자의 '싸이언 싸이버-5000'은 ▶PC에 입력돼 있는 캐릭터 이미지나 멜로디를 간단히 편집,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ez Sync' 기능, ▶배경화면, 시작, 발신, 수신, 종료 등의 여러 가지 화면을 개성있는 캐릭터 이미지나 벨소리로 설정/구현할 수 있는 '테마선택기능', ▶빠르고 간편한 한글입력 방식인 'ez한글' 채택, ▶발신자정보표시(CID) 기능' 등 정보관리와 오락적 요소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최적의 휴대폰이다.



씨엔아이, PDA용 키보드

씨엔아이(PDA)가 PDA용 초소형 키보드를 개발해 판매에 들어간다.

이 제품은 지난 5월 미국 싱귤러사가 주관한 무선 데이터 통신 전시회인 웨이브2001에서 세계적인 무선 데이터 통신 업체들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끈 것으로 마이세스 전용 탈착식 소형 키보드이다.

기존 PC 키보드와 같은 입력방식을 채택했으며 소형 키보드인 점을 감안해 단축키 기능을 강화해 빠른 입력이 가능할 뿐 아니라 기존 터치입력자판, 문자인식 입력 등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한 다양한 입력 방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탭테이블 방식 키보드의 경우 부피가 커 이동중 사용이 힘든 점이 있었지만 이 제품은 단말기 일체형으로 장착돼 휴대가 편리하고 이동 중에도 입력이 가능하다. 또 장착식 키보드 입력 버튼면과 화면에 경사를 줌으로써 인체 공학적으로 디자인되어 화면의 반사 및 눈의 피로를 최소화했다.

특히 채팅 등에 자주 사용되는 특수문자는 화면에 별도 배치해 터치 스크린을 이용한 입력도 가능하고 이메일, 채팅, SMS 등 무선 PDA 마이세스의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사용자의 편리성을 크게 높인 것이 장점이다.

씨엔아이는 이 제품에 대한 특허 출원과 및 시험 테스트를 마친 뒤 8월부터 시판에 들어간다.

효성데이터시스템, 관제용 LCD프로젝터

효성데이터시스템은 기존에 관제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CRT프로젝터를 대신할 수 있는 프로젝터(모델명 GT1150)를 최근 선보였다.

이 제품은 기존의 LCD프로젝터가 24시간 연속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을 극복, 안정적으로 장시간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 또 기존의 제품이 대부분 렌즈가 상하로 움직이는데 반해 이 제품은 상하좌우 렌즈이동이 가능해 설치공간 확보를 용이하게 했다.

3000 ANSI급 프로젝터에는 처음으로 랜카드를 설치해 노트북 없이도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하다.